

민주 송영길·윤호중 투톱, 당청·여야 관계 어떻게 풀까

새 지도부 친문·비문 계파 조화
이철희 “당이 주도, 대통령 뜻”
송영길 “당정청 원팀 구성할 것”
당야 관계는 강경론 이어갈 듯

에 앞서 송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축하 인사로 건넸다. 송 대표는 “따스한 축하의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긴장감도 흐른다. 친문 색채가 강한 최고위가 구성되면서 쇄신론을 내세운 송 대표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이 강한 송 대표 특유의 캐릭터도 내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당장, 3일 개최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운도차’가 드러났다.

강성 친문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내에서 거론되는 쇄신론을 겨냥,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어떤 이분법적 논리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일갈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얇은 백혜련 최고위원은 “국민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개혁을 내세운 김용민 최고위원에 대립각을 세웠다. 또 송 대표가 지도부 인사들에게 개별적인 공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들은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야 관계는 강경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재협상은 일절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법사위원장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제의를 거절, 여야의 전운은 고조되고 있다. 당장 4일부터 시작되는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백신 국정조사’와 ‘LH 특검’ 등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여야의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며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가 차기 대선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이승만·박정희 묘소도 참배... 첫 날부터 통합 행보

“제복 입은 분들 잘 챙기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3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진보 진영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함으로써 통합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 대표는 이날 현충원 방문에 “민주방본 본고방본(民惟邦本 本固邦寧)”,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한 뒤에는 방문록에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고 적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 방문록에는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대통령님의 애국독립정신을 기억한다”고 남겼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 방문록에는 “실사구시 정신을 계승해가겠다”고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 방문록에서는 “군정종식, 하나회 해체”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지켜가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와 함께 손원일 제독과 김중오 장군 묘역도 참배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현충탑 참배를 앞두고 최고위원들에게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 유니폼(제복)을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민주당이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이라며 “세월호는 그렇게 하면서(챙기면서)”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또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런 행사에 내가 안 가면 최고위원이 가야 한다”며 “내가 그래서 오늘 김중호 묘역을 간다. 6·25때 춘천에서 북한군을 막아냈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이제 대선”... 이재명 세력화에 이낙연·정세균 채비

민주 전대 결과 유불리 촉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5·2 정당대회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번에 선출된 당 지도부는 향후 대선 경선을 총괄하고 관련 톨을 손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권 주자들이 물밑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3일부터 원내 의원 연구모임인 ‘성공과 공정 포럼’(성공 포럼) 가입 신청서를 받는다. 측근 의원은 “공정 가치를 담은 새로운 성장 담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이재명계 의원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중도 성향 또는 친문

의원들도 포함함으로써 확장성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네트워크 플랫폼인 ‘민주평화광장’도 오는 10일 발족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직접 와서 강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4·7 재보선 이후 잡행을 이어가던 이낙연 전 대표도 공개 행보를 시작한다. 오는 8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지지 모임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세균 전 총리 측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캠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임 지도부에 정세균계가 직접 들어가진 않았지만, 정 전 총리의 세력 기반이 탄탄한 만큼 경선 과정에서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새 지도부에서 조만간 대선 경선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대권 선호도, 윤석열 32%·이재명 23.8%·이낙연 9.0%·정세균 4.0%

리얼미터 조사... 대통령 지지율 최저 KSOI, 윤 석열 30%·이 지사 2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주자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격차가 한 자릿수대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57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2%, 이재명 경기지사는 23.8%였다. 전달과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은 2.4%포인트 내리고 이 지사는 2.4%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지지

율 격차는 13.0%포인트에서 8.2%포인트로 줄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달보다 2.9%포인트 내린 9.0%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 5.0%, 오세훈 서울시장 4.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1%, 정세균 전 국무총리 4.0%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3.0%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 내려간 62.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또다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차 차례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윤 전 총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30.1%를 기록했다. 이 지사를 선택한 비율은 26.2%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당대표는 10.6%, 홍준표 의원 5.5%, 정세균 전 총리 4.8%, 오세훈 서울시장 3.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 순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9.6%, 부정평가는 54.9%를 기록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